효성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기차 공동이용서비스 사업'의 충전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다. 효성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아차 '레이'의 전기차에 충전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본격 전기차 충전사업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이달부터 시범운영

전주에 탄소공장 건립 호남진출도 탄력

효성이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공동이용사업에 충전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충전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효성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기차 공동이용서비스 사업'의 충전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효성은 이 사업에서 급속충전시스템 4기, 완속충전시스템 22기 등 총 26기를 공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자동차용 주유기'로 전기차 충전기능 외에 충전소 이용정보 제공, 차량 고장시 긴급구난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충전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효성이 원격감시 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전기차 공동이용 사업은 차량(전기차)을 개별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 일환으로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 및 충전소가 있어 차량을 시간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지정된 지역에 반납하는 방식의 차량공유 서비스다. 지식경제부가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체제구축을 위해 8월부터 1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은 기아차의 '레이'다.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가까운 보관소의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해당 보관소에서 차량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충전시스템에 차량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반납이 완료되며 결제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된다.

효성은 2010년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처음 개발 한 이후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시범단지를 비롯 전국 공공기관 등에 120여대의 충전시스템을 공급해왔으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공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효성은 전자소재 사업과 고부가가치 섬유 사업, 전기차 모터 및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일환으로 효성은 지난 3월 전주시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에 연간 2000t 규모의 탄소 공장 건립을 착공,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호남지역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택연금 月 지급액 44만원

광주·전남 전국 절반 못미쳐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전국 평균(103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가 7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268명(보증금액 1344억1500만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달 받는 지급금은 평균 44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103만원)에 42.7%에 불과한 액수로 대구·경북(59만원), 강원(47만원)보다도 적었다.

월 지급금이 50만원 미만이 69.3%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 26.1%, 100만~150만원 미만 4.2%, 150만~200만원 0.4% 등이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자금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월평균 지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710만원인 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2억7800만원으로 광주·전남지역의 2배를 넘었다.

광주·전남지역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2억원 미만 55.2%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 36.7%, 2억~3억원 미만 7.3%, 3억~4억원 0.8%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0.3%,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부부는 낮은 연령 기준)였고, 70~74세 29.7%, 75~79세 22.4%, 80세 이상 19.7%, 65~69세 18.5%, 60~64세 9.7%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가족 구성은 부부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홀로사는 노인이 43.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광주지역 이용자가 74.9%로 전남지역(25.1%)보다 많았다.

박경순 광주전남지사장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광주·전남지역 가입자는 매년 5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연금 전국 가입고객 1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 21일 사은행사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친서민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햇사과 나왔어요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홍로 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은, 中企 추석 특별대출 3000억원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공생경영 실천차원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3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편성 2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특별자금은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남해안의 적조피해 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금수요 업체를 적극 발굴해 추석명절 이전부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빠른 지원정책을 펼 계획이다.

추석 특별운전자금 대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차입(C2)시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부담까지 덜어 주기로 했다.

특히 동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 해준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에서 사치향락업종과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최재호기자 lion@

"증권사 금융겸업시 추가 규제 필요"

한국은행

증권사의 대출 등 금융사의 내부겸업 업무에 추가 자본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상진 한국은행 과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사 겸업 확대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 상호 간 연계성 확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겸업이란 하나의 금융기관이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영업 형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금융기관의 겸업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들끓었다. 일각에선 겸업구조를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꼽았다. 투자은행 부문에서 유발된 불안이 겸업화된 영업구조를 연결고리로 상업은행 부문으로 전이하며 연쇄도산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겸업 구조로 덩치가 커진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추구해 금융·실물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하는 '섀도우 뱅킹(유사은행)' 역시 중앙은행 대출제도나 예금보험 등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볼커룰'을 도입했다. 영국도 겸업제한을 강화하고 소매은행을 도매·투자은행에서 분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업자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유사은행 영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VVIP 카드 서비스 '다이어트'

연회비의 최대 5배까지 혜택을 누리는 초우량고객(VVIP)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가 많이 줄어든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 등 국내 주력 카드사는 VVIP 카드 혜택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전월 사용 실적을 강화해 무료 상품권 제공을 제한한다. 신규 VVIP 카드 상품은 다음달부터 아예 출시하지 않는다.

KB국민카드는 내년 1월부터 VVIP 카드 회원에게 '간호사 방문 통합의학 검사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롯데카드는 무료 상품권 제공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60만원짜리 '퍼플카드' 가입시 무료 상품권을 제공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카드 이용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당첨 확인

복권위, QR코드 서비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는 22일 복권 당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앱을 설치하고 나서 복권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피로 자동 연결된다.

로또는 25일(508회차) 추첨분부터, 연금복권은 11월7일(71회차) 추첨분부터 서비스된다. /연합뉴스